

공주고 안승민 대회 첫 완투승



동성고 4-0 강릉고

동성고가 가장 먼저 16강 고지를 밟았다. 공주고도 '난적' 휘문고를 꺾고 16강에 합류했다.

동성고는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대회 강릉고와의 대회 개막전에서 이영기-유경국으로 이어진 마운드의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4-0으로 승리했다.

강릉고 에이스 최정현이 1회부터 세 개의 볼넷을 내주며 흔들렸다.

1회초 동성고 선두타자 문진제에게 볼넷을 허용한 최정현은 2사에서 심의정, 문동욱을 볼넷으로 출루 시키며 2사 만루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강릉고 유격수 박재현이 채수웅의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낸 뒤 2루에 송구,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냈다.

2회와 3회에도 1사 1·2루의 득점기회에서 점수를 내지 못했던 동성고는 4회초 8번 문우람과 1번 문진제의 2루타 2개를 묶어 선취점을 올렸다. 동성고는 6회 김민재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태며 2-0을 만들었다.

2점의 리드를 이어가던 동성고가 먼저 마운드를 교체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5회까지

난적 휘문 상대 5피안타 2K 호투 강릉 꺾은 동성과 함께 16강 합류

2피안타 6사사구 4탈삼진으로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키던 동성고 이영기가 6회초 선두타자 전석현에 볼넷을 내주자 에이스 유경국이 곧바로 가동됐다.

유경국은 폭투와 볼넷으로 2사 1·2루의 위기를 맞기는 했지만 6번타자 김성일을 2루수 앞 땅볼로 잡아내며 6회를 마무리 지었다.

7회 세 타자를 삼진으로 요리한 유경국은 8회초 2점을 보태준 팀 타선의 지원 속에 4이닝을 1피안타 2사사구 5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며 팀의 승리를 지켜냈다.

휘문고 1-3 공주고

고교 최고의 강속구 투수 안승민은 공주고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다.

공주고는 1회전에서 대회 첫 완투승을 장식한 안승민의 활약으로 휘문고를 꺾고 16강에 안착했다.

공주고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3회 테이블 세터 고세진과 조상현이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만든 2사 1·2루에서 3번 고봉찬의 2루타가 터지면서 공주고가 선취점을 기록했다.

8회에도 2사 이후 추가점수가 터졌다. 3번 고봉찬이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김기선·김

설빈의 연속안타가 나오면서 3-0으로 공주고쪽으로 승부가 기울었다.

마운드에서는 공주고 에이스 안승민의 노련한 피칭이 돋보였다.

2회 선두타자 전수환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패스트볼이 나오면서 무사 2루, 박태원의 희생번트로 주자가 3루까지 밟았지만 안승민은 삼진과 땅볼로 남은 아웃카운트를 잡으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초반 고비를 넘긴 안승민은 145km의 강속구를 앞세운 과감한 피칭으로 휘문고 타선을 잠재웠다. 안승민은 9회 1사에서 전수환의 1루수 앞 땅볼 때 베이스 커버를 들어갔다 공을 놓친 뒤 곧이어 박태원에게 3루타를 허용하며 완봉승을 놓치기는 했지만, 남은 두 타자를 삼진과 외야 플라이로 잡아내며 팀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의 무등기 야구

- 1회전
- ▲ 구미전지공고-군산상고(10시)
- ▲ 세광고-경기고(13시)
- ▲ 진흥고-마산고(15시30분)

공주고 안승민 145km 강속구로 '잔물피칭'

무등기 스타

"명문 휘문고를 맞아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동료들의 도움 속에 대회 첫 완투승을 거머쥐어 기쁘다."

공주고의 '볼직구' 에이스 안승민(18·3년)이 15일 휘문고와의 대회 1회전에서 선발로 나와 9이닝 동안 5피안타 2탈삼진의 호투로 팀의 16강을 이끌었다.

안승민은 '야구 명문' 휘문고를 맞아 단 1점만을 내주는 '잔물 피칭'으로 대회 첫 완투승까지 기록했다. 시속 145km의 묵직한 직구로 휘문고 타자들을 상대한 안승민은 몸쪽 투심과 슬라이더를 적절히 섞어 던진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회초 1사 1루에서 3루타를 맞아 1점을 내주며 아깝게 완봉승을 놓쳤지만 이후 두 타자를 범타로 처리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리했다. "몸쪽 직구가 잘 먹혀들면서 경기를 쉽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팀 타자들이 적절하게 점수를 뽑아주면서 마음 편히 공을 던졌던 게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대전 신흥초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안승민은 185cm의 큰 키에 90kg 몸무게로 신체 조건이 좋은데도 최고 146km까지 나오는 묵직한 직구가 일품이다. /강필상기자 kps@



〈야탑고 줄 윤석민〉 〈동성고 줄 양현중〉 〈장흥고 줄 홍세완〉 〈공주고 줄 최유규〉 〈군산상고 줄 김상현〉 〈장흥고 줄 유동훈〉

"무등은 성장의 기회... 꼭 우승 해달라"

■ KIA 선수들 모교 후배들에 응원메시지

6월 아마야구의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선수들에게도 관심거리였다.

15일 오전 무등경기장에 모여 원정길에 오른 KIA 선수들은 출발에 앞서 대회 팸플릿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배들을 응원했다.

출발에 앞서 모교 동성고 선수단과 잠시 인사를 나눈 양현중은 후배들에게 '경험'을 강조했다. 지난 시즌 제1군 난조와 미숙한 플레이로 호된 2년차를 보냈던 양현중은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 팀의 좌완 에이스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양현중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다"며 "지는 법, 이기는 법 등 상황 상황에 따른 것들을 소중한 경험으로 쌓고 즐기길 바란다"고 동성고의 선전을 빌었다.

양현중의 응원에 힘입은 동성고는 강릉고와의 개막전에서 4-0으로 이겨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다.

장흥고의 우승을 바라는 유동훈과 1년 후배 홍세완의 심정도 각별하다.

후배들을 이끌고 광주를 찾은 장흥고 송영관, 김현중 코치는 고등학교 시절 함께 구슬땀을 흘렸던 동문이다.

홍세완은 "매번 전화를 걸어와 훈련 방법과 기술 등을 물어보

는 두 코치의 열정이 대단하다"며 "그라운드에서 서는 것을 즐기면서도 야마 선수다운 패기로 후배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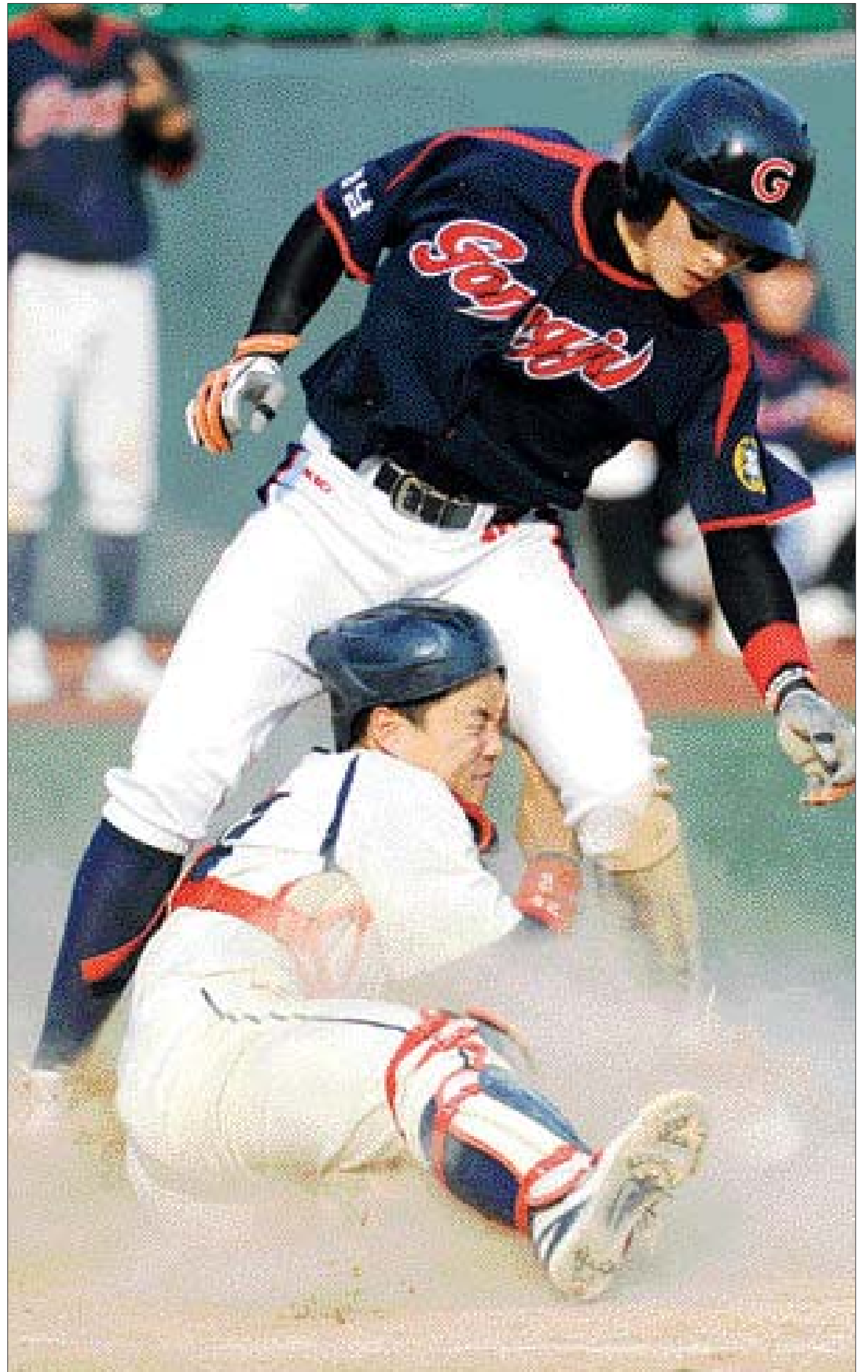
유동훈은 "학생답게 열심히 뛰면서 예의를 지키고, 기본적인 야구에 충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후배들을 독려했다.

KIA의 승부사로 재탄생한 군산상고 출신의 김상현은 '집중력'을 주문했다. 김상현은 "타격 컨디션은 매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른 움직임을 미리 생각하고 집중력을 가진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며 군산상고의 무등기 제패를 기원했다.

발타플레이어로 눈길을 끌고 있는 최유규는 "고등학교 시절은 많은 걸 배우고, 체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최선을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순간 순간 성실한 플레이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공주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무등기를 통해 KIA와 인연을 맺은 야탑고의 스타 윤석민도 후배들을 위한 한 마디를 잊지 않았다.

윤석민은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만드는 데도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며 "투수들 같은 경우 프로선수들을 따라 무리하게 변화구를 던지지 말고 야마 선수들답게 기본기에 충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5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휘문고와 공주고 경기에서 6회말 좌익수 앞 2루타를 치고나간 공주고 고봉찬이 다음 타자 김기선의 희생번트에 이은 김설빈의 우익수 플라이로 홈에 쇄도했으나 아웃되고 말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서울 찍고 부산 원정 6연전

주중 1위 수성 두산과 최대 빅매치

나지완·김선빈 활약따라 2위 도약



이대진투수프로야구

두산의 벽 넘어야 2위 간다. 3연패에 빠진 삼성 라이온즈를 따돌리고 3위 자리를 굳건히 지킨 KIA 타이거즈가 험난한 원정길에 올랐다. 상대는 1위 독주 중인 두산 베어스와 전력을 재정보기한 6위 롯데 자이언츠다.

호시탐탐 2위를 노리고 있는 KIA와 빈틈 없는 전력으로 1위를 수성하고 있는 두산과의 경기는 이번주 프로야구 최대 빅매치.

올 시즌 양팀은 만나기만 하면 한치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지만 KIA는 이번이 뒤편 대결에서 밀리며 두산전 1승 7패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KIA는 이동일인 15일, 평소보다 3시간 가량 이른 오전 11시30분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일찌감치 짐을 풀고 연습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단 하루 주어지는 월요일의 휴식도 반납한 것이다.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두산	36	20	2	0.621	4승
2	SK	36	22	4	0.581	2패
3	KIA	33	25	3	0.541	1승
4	삼성	28	33	0	0.459	3패
5	히어로즈	26	32	1	0.441	2승
6	롯데	26	35	0	0.426	2패
7	LG	26	33	3	0.419	2승
8	한화	22	33	3	0.379	1패

KIA는 이번주 호재와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다.

지난주 마운드에 서재용이 가세했고, 부진을 이어오던 한기수가 14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5-2로 앞선 9회 등판해 삼자범퇴로 경기를 마무리 하며 4월16일 롯데와의 경기

에 이어 59일만 만에 세이브를 신고했다.

선발과 마무리의 복귀로 마운드 운용에 승용이 띄어가는 했지만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만점 활약을 해주던 임준혁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불펜에 힘이 떨어졌다.

타선에서는 김원섭과 이현곤의 부재가 눈에 띈다. 왼쪽 햄스트링으로 2군에 내려갔던 외야수 김원섭은 간수치가 상승해 병원 신세다. 내야수 이현곤도 피로누적으로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자리를 비웠다.

특히 타격과 수비에서 모두 맹활약하며 1번 자리를 지키던 김원섭의 공백이 아쉽다.

백전노장 이종범이 김원섭의 빈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어진 강행군으로 피로가 누적됐다. 게다가 이용규, 채종범에 이어 김원섭마저 자리를 비우면서 외야가 불안정하다. 타선의 중심 최희섭-김선현의 동반하락도 악재다. 어린 선수들의 상승세가 그나마 KIA 타선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지난주 한화전에서 4개의 홈런을 터트린 나지완과 1군 복귀 후 세 경기에서 11타수 8안타로 0.728의 타율로 고공 행진 중인 김선빈 등 신예 선수들의 활약여부가 악재 겹친 KIA의 원정길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